

학술회의 총서 2000-02

#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주변국의 역할

통일연구원 창립9주년 기념  
제9·국제학술회의

통 일 연 구 원

## 개 회 사

존경하는 양영식 통일부 차관님!

오늘 뜻깊은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사회를 맡아주신 구영득 교수님과 김달중 소장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사제의 전문가 여러분!

특히 미국, , , 아시아에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에 관한 각국의 역할에 관해 말씀해 주실 발표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빛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시어 통일연구원 창립 9 년을 기념하는 제9 1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학술회의에서는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주변국의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 3 1 선언사를 통해 한반도 냉전종식과 남북화해· 력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제안하셨습니다.

현재 남북한은 경제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좀더 다양한 분야로 교류· 력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의 제안은 남한과 북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토지와 노동력을 상호결합시킬 수 있는 경제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상호보완적이고 호혜적인 남북관계와 공존공영의 틀을 마련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 Road to the South-North Economic Community

---

김 규 룬

( )

### I Introduction

South-North Korean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began with the initiative of South Korean government in 1988. At that time, South Korea was preparing for the Summer Olympics in Seoul. One of the concerns by South Korea and international community was to deter North Korea's aggressive behavior toward the South. Thus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decided to mitigate North Korean belligerency by suggesting friendly gestures toward the North. South Korean President Ro Tae-Woo made Special Presidential Declaration for National Self-Esteem, Unification, and Prosperity in order to initiate South-North Korean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is sense, South Korean efforts to build an economic community between the two Koreas were begun more than ten years ago. South Korean initiative was materialized in 1988 when

○본 자료는 2000 4 7 !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 홀에서 개최된 통일연구원 제9

○ -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통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지난 3 10 ! 김대통령은 베를린선언을 통해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농업협력 등 본격적인 정부차원의 경험을 통해 북한경제회복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에 대한 과제는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반응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북한은 일단 남북한 경제협력의 이익에 대해서는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향후 남한의 태도를 주시하겠다는 다소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은 남한측의 후속조치와 충분한 경제적 실리가 보장된다면 비공개 또는 일정한 조건을 내걸고 남한의 제의를 일정 부분 수용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와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연구와 방안이 마련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근본적으로 대북포용정책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및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종합적인 틀에 입각하여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제시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특히 주변국들의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협력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 경제공동체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하는 주변국들의 이해와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는 남북한간 경제공동체 건설을 중심축으로 하여 주변국들과의 협력증진 및 관계개선을 도모할 것이고, 따라서 주변국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는 학술회의의 논의는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2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주변국의 역할

Daewoo received approval from South Korean government on importing North Korean made porcelain. Subsequently South Korean firms began economic transactions with North Korean counterparts. During the initial stage, South-North Korean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were performed along the lines of mere indirect trade. These intra-Korean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developed further to include processing trade, which South Korean firms provide capital and North Korea provides labor. Now numerous South Korean tourists can visit North Korea via cruise ships and climb Mt. Kungang, which is famous for its magnificent scenery throughout four seasons after Hyundai launched Mt. Kungang project in 1998.

All these achievements have been made possible primarily by the initiatives of South Korea. In contrast North Korea has maintained rather reactive and/or lukewarm attitude towards South Korean efforts to accelerate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t may be more proper to say that North Korean attitude is that of minimizing economic interactions with the South because it still fears possible adverse effect of economic opening-up. North Korea may still want to deal with economic hardship under its own terms even though it is in need of outside help to feed its people.

Under these circumstances, how can we proceed to build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mmunity? First, in order to delineate future paths of building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mmunity, the current paper attempts to analyze past

## 발 간 사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한반도 냉전종식과 남북 화해·협력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대북정책 추진과제의 하나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방향에 관한 즉각적인 연구를 위해 통일연구원을 비롯한 '국책연구기관간 협의체'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본 연구원은 개원 9주년을 맞이하여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주변국의 역할」라는 주제로 아래 국내외 권위자를 모시고 지난 4월 7일

이 자리에서는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주변국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이 발표되었으며, 현 단계에서 모색될 수 있는 주변국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남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 모두가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는 초석으로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생산적인 방안의 모색이 국책연구기관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과 민간단체에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원은 금번 개원기념 국제학술회의가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의 초석을 쌓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발표논문과 회의내용을 정리하여 출간하오니, 아무쪼록 통일문제를 연구하고 정책입안을 준비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통일연구원 원장 께 태 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각국의 권위있는 발표자와 지정토론자, 그리고 전문가들께서 이에 관한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학술회의의 축사를 해 주실 양영식 차관님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학술회의가 생산적이고 성과 있는 회회가 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2000. 4. 7

통일연구원 원장 박 태 환



achievements of South-North Korean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Second, South Korean governmental policies regarding intra-Korean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shall be examined. Third, analyses of impediments against expansion of economic interactions and feasible solutions to expedite processes of building economic community shall be suggested.

## II Past Achievements

### 1. The Basic Agreement

In the early years of the 1990s, South and North Korea engaged in series of high-level governmental talks. The two Koreas effectuated The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hereafter the Basic Agreement) in February 1992. The Basic Agreement is composed of three chapters, one of which is primarily concerned with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specially, the Article 15 stated that "in order to promote the integrated and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welfare of the entire people, the South and the North shall engage in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including the joint development of resources, the trade of goods as intra-Korean commerce and joint venture."<sup>1)</sup> In other words, the two parties

---

1)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s and



개 회 사	곽태환( )
축 사	양영식( )

**I 1 1 : 미국의 역할**

1. Road to the South-North Economic Community .....	1
김규문 ( )	

2.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in the Construction of a North-South Korean Economic Community .....	37
Edward Olsen (U.S. Naval Post-graduate School)	

3. Japan's Economic Assistance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Expected Policy and the Tasks for the Coordin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	62
Yukiko Fukagawa (Aoyama Gakuin Univ., Japan)	

◆ 토 문 .....	125
-------------	-----

## 축 사

존경하는 박영규 부원장님, 오늘 사회를 맡아 주실 김달중 소장님과 구영록 교수님, Edward Olsen, 深川由起子, 엘리 러시아에서 오신 Alexander Fedorovsky,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셔서 이 토론에 참가해 주신 Peter Mayer 박사님과 Scott Snyder, 그리고 존경하는 우재승 교수님을 비롯해서 김익수 교수님과 이창재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저는 오늘 통일연구원 창립 9년을 맞이해서 「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주변국의 역할」, 주제로 91째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91 동안 국제연구기관으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북한문제와 통일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오시고 또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이만하는 데 기여해 오신 통일연구원 가족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하신 내외빈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올해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국제연구기관간 협의를 북한측에 제의한 바 있습니다. 1. 5 1. 회의에서 대북정책의 추진 과제의 하나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의 방침에 따라서 통일연구원이 간사 기관이 되어서 8 그리고 지난해까지 연구해 온 실적을 토대로 해서 남북경제공동체

agreed that economic exchange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should be considered as intra-Korean matters, and subsequently, intra-Korean trade would not be subjected to be imposed tariffs by either parties. Furthermore the two Koreas agreed on the concrete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Chapter III of the Basic Agreement as follows.<sup>2)</sup>

1. South and North Korea shall carry out exchanges of goods, the joint development of such resources as coal, minerals and marine resources, and projects for economic cooperation in fields such as manufacturing, agriculture, construction, banking and finance and tourism.
2. South and North Korea shall, through consultations in the Joint Commission for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determine the subject of and form of projects of economic cooperation such as the joint development of resources, joint ventures and investment, and the items and quantities of goods to be exchanged.
3. South and North Korea shall determine such practical matters as the scale of projects of economic cooperation, including the joint development of resources, joint ventures and investment, and the quantity per item of the goods to be

---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ttp://www.unikorea.go.kr/eg/load/D41/D4130.htm>.

2) 'Protocol on the Implementation and Observance of Chapter III South-North Exchanges and Cooperation, of the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ttp://www.unikorea.go.kr/eg/load/D41/D4125.htm>.

II 2 :	·  의 역할	
1.	남북한 경제협력과 중국의 역할에 대한 시론적 분석 .....	130
	陸忠偉 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所	
2.	The Russian Role in Constructing a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mmunity .....	152
	Alexander N Fedorovsky (MEMO, Russia)	
◆	토 문 .....	173
회의일정		

건설방안을 총체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연구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정부도 유관부처들이 국책연구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소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측의 반응에 따라서 언제든지 국책연구기관간 또는 정부당국간에 대북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남북경제공동체는 남과 북이 경제교류·역에 폭과 깊이를 더욱 넓혀서 상호보완적이고 호혜적인 공동이익을 도모함으로써 화해협력과 공존·영의 틀을 마련하는 한편 민족경제의 통일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으로 남북한 주민의 복리향상을 지향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져 나가자는 것입니다. 김대통령님께서 지난 3·10! 베를린선언에서도 구체적으로 천명한 농업구조 개혁지원과 사회간접자본 협력용의를 표명한 것은 남북경제공동체 건설구상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은 단기적으로는 북한경제의 회생과 남북경제의 공동이익을 도모해 나가는 데 역점이 주어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주변국가들과도 함께 동북아 지역의 협력체를 형성하는 구상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구상과 노력이 구체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긍정적 호응과 주변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조만간 긍정적인 발언을 시현함으로써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대화가 시작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북한경제의 현주소를 보면 외부로부터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이 없으면 경제회생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3 제일주의 구호만 가지고 경제회생과 현대화는 결코 기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exchanged, and the terms of trade through discussions between the parties from the two sides directly involved in exchanges and cooperation.

4. The parties that shall be directly involved in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exchange of goods shall be trading houses, companies business enterprises, and public economic agencies which have been registered as juridical persons, and,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may also be individuals.
5. South and North Korea shall carry out projects of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exchange of goods by concluding contracts with the parties directly involved in the exchanges and the completion of the necessary procedures.
6. The prices of goods to be exchanged shall b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international market prices through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directly involved.
7. The exchange of goods between South and North sha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reciprocity and complementarity.
8. The payment for goods exchanged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shall be settled, in principle, through a clearing account, providing however, that other methods of settlement may be used by agreement between the two sides when necessary.
9. South and North Korea shall determine by mutual agreement matters necessary for the settlement of payments and capital